

2008학년도 10월 고3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언어 영역

정답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6	5	7	4	8	4	9	4	10	4	11	3	12	2	13	1	14	5	15	4	16	4	17	5	18	4	19	1	20	1	21	3	22	5	23	2	24	3	25	4	26	1	27	2	28	4	29	1	30	2	31	3	32	2	33	2	34	4	35	1	36	1	37	5	38	2	39	3	40	5	41	5	42	3	43	3	44	2	45	5	46	1	47	5	48	4	49	3	50	1

해설

[1] 이제 여러분은 암호화 방법에 대한 강연을 듣게 됩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암호는 특정한 사람들 사이에 정해진 특수한 약속입니다. 최근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다양한 암호화 방법이 개발되고 있는데, 그 중에는 한글을 암호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한글을 자음과 모음으로 분리한 후 각 자음과 모음에 부여된 숫자의 곱과 합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보기>의 표를 보면서 '고' 자를 가지고 간단한 원리 하나를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고' 자를 'ㄱ'과 '오'로 분리해서 표에서 각각에 해당하는 숫자를 찾습니다. 그러면 자음 'ㄱ'에 해당하는 숫자는 '1'이고, 모음 '오'는 '-5'죠. 이렇게 해서 '고' 자는 일단 '1'과 '-5'로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숫자를 곱하여 값을 얻습니다. 여기서는 '1'과 '-5'의 곱이니까 '-5'가 되는군요. 이번에는 두 숫자를 더하여 값을 얻습니다. 그럼 '1'과 '-5'의 합이니까 '-4'가 되는군요. 이런 식으로 곱하고 더하는 과정을 거쳐 (-5, -4)라는 암호가 탄생하게 됩니다. 잘 이해하셨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 보시죠. '마'라는 글자를 암호로 바꿔 볼까요?

1. [출제의도] 둘러싼 내용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의 표를 보면 'ㄹ'은 '5'이고, 'ㅏ'는 '-1'임을 알 수 있다. 다음 단계에서는 두 숫자를 곱하여 값을 얻는다고 하였는데, 이 방법대로 하면 '-5'라는 숫자를 얻을 수 있다. 또 다음 단계에서는 <보기>의 표에 자음과 모음을 대응시켜 얻은 숫자들을 더하는 단계라 하였는데, 이 방법대로 하면 '4'라는 숫자를 얻을 수 있다.

[2] 이번에는 라디오 교양 프로그램을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해의 여행객들이 여행을 할 때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바로 '시차 적응'입니다. 3시간 이상의 시차를 넘는 비행기 여행은 인체의 시계와 외부의 시계가 맞지 않는 현상을 발생시켜 생체 리듬이 깨지는 문제를 초래합니다. 그래서 초조함, 집중력 저하, 어지러움, 두통, 근육통, 변비나 복통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은 스트레스나 수면 부족, 덥고 건조한 기내의 환경 등으로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시간의 시차에 완벽히 적응하기 위해서는 하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보다 더 많은 시차가 난다면 며칠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보통 서쪽으로 여행할 때보다는 동쪽으로 여행할 때 시차에 적응하는 것이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면 빠른 시차 적응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세 가지 정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행하기 전에는 인체 내부의 시계를 조절해야 합니다. 여행을 떠나기 전 점진적으로 목격지 시간에 맞게 인체 내부의 시계를 고쳐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 동쪽으로 여행할 계획이라면 평상시보다 한 시간씩 일찍 잠들고 한 시간씩 일찍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 여행하는 도중 기내에서는 너무 꼭 조이는 옷은 삼가도록 하여 좀 더 편안한 여행이 되도록 합니다. 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카페인과 알코올이 함유된 음식들을 삼가도록 합니다.

셋째, 여행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에는 손목에 찬 시계를 여행지 시간으로 바꾸고, 본인 스스로 그 시간에 맞추어 행동하도록 노력합니다.

2. [출제의도] 개괄적인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동쪽으로 여행할 때 시차에 적응하는 것이 어렵다는 내용은 있지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다.

[3] 이번에는 선생님과 학생의 대화를 들려 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학생 : 선생님, 저는 지난주에 있었던 일본과의 축구 경기에서 우리가 지고 난 뒤부터는요 공부할 의욕도 사라졌어요. 우리가 식민지였던 것도 억울한데 특하면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그래서 어떤 중목이든지 일본에게 지고 나면 짜증이 많이 나오.

선생님 : 나도 너만 할 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단다. 하지만 스포츠는 그냥 스포츠로 즐겨야지, 그 이상의 의미가 개입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단다.

학생 : 글썽요. 저는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무언가 의미를 부여해야 스포츠 경기가 더 재미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 분명히 재미는 있겠지.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운동 경기를 통한 화합이라는 스포츠의 본질을 해칠 수도 있단다. 예전에 월드컵 축구 예선을 치렀던 엘살바도르와 온두라스가 경기에 지나치게 의미를 부여하는 바람에 양국 사이에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기도 했단다.

학생 : 정말요? 와,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 거네요.

선생님 : 부작용은 그 뿐만이 아니란다. 독재자들이 스포츠의 과잉 열기를 이용해 국민을 어리석게 만들기도 하지. 국민들은 스포츠 경기에서 자기 팀이 이기면 모든 현실 문제가 해결되는 듯한 착각에 빠지기도 한단다. 1978년의 아르헨티나 월드컵이 그런 경우였어. 아르헨티나 군사 정부는 국민들의 민주화 요구와 경제난으로 인한 불만을 월드컵의 우승 열기로 덮어 버렸지. 그 덕분에 아르헨티나 군사 정부는 집권을 연장할 수 있었단다.

3. [출제의도] 대화를 듣고 말하는 이의 반응을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선생님은 외국의 사례를 통해 본래 정신 외에 다른 의미를 스포츠에 개입시키면 부정적인 결과가 일어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본래의 의미 외에 다른 의미가 개입되면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학생의 반응으로 적절하다.

[4~5] 이번에는 방송 토론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남) : 최근 공직 선거 투표율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앙 선거 관리 위원회의 박 과장님과 시민 단체 이 대표님을 모시고 이에 대해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박 과장(남) : 예, 제17대 대통령 선거 투표율은

63%, 제18대 총선 투표율은 46%, 64 보궐 선거 투표율은 23.2% 등 각종 선거의 투표율이 날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대의 민주주의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선 지난 총선 때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에게 투표 확인증을 제공해서 공공시설 이용료를 면제해 주는 '투표 인센티브제'를 시행했습니다.

이 대표(여) : 투표율이 낮을 경우 민의가 왜곡될 수 있으므로, 수수방관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투표 인센티브제'는 일종의 이벤트성 홍보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런 수박 겉핥기식의 조치로는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없다고 봅니다. 박 과장님, 실제로 '투표 인센티브제'가 효과가 있었습니까?

박 과장 :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직 선거 출마 자격에 이전까지의 투표 참여 횟수를 포함시키는 방안, 투표 참여 여부에 따라 공무원 채용 때 감점을 하는 방안 등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더 효율적인 대책을 검토 중입니다.

이 대표 : 지금 말씀하신 대책을 들어보니 규제 위주네요. 게다가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도 있고, 개인의 자유권을 제한할 수도 있어 그러한 대책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과장 : 싱가포르나 호주처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벌금을 부과하는 나라도 있습니다.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잘못된 의식이 투표율 하락의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 : 규제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선택할 만한 정당이나 후보가 없는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유권자의 자제나 의식을 탓하며 일방적으로 회초리를 드는 것은 올바른 해결 방향이 아닙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당과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4. [출제의도] 토론 내용을 듣고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남자 토론자와 여자 토론자는 모두 공직 선거의 투표율 하락이라는 현상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남자 토론자는 규제를 통해 투표율을 높이는 해결책을 고려하고 있는데 반해, 여자 토론자는 정당과 후보자들이 유권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출제의도] 토론 내용을 듣고 말하기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여자 토론자는 '수박 겉핥기식', '만병통치약', '회초리를 드는 것' 등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면서 남자 토론자의 의견을 비판하고 있다.

6. [출제의도] 제시된 내용을 참고로 언장할 때 이끌어 낼 수 있는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에베레로 땅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후에 성층이 되는 과정에서 인내하는 과정을 떠올릴 수 있고, 매미가 알에서 에베레로 거쳐 성층이 되는 과정에서 단계를 필요성을 알 수 있다. 또한 짝짓기를 하기 위해 열심히 우는 수컷 매미로부터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떠올릴 수 있으며, 한 달 안에 짝짓기를 하고 생을 마감하는 내용에서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다.

7. [출제의도] 글쓰기의 단계 중 계획하기에서 주제문과 예상 독자에 맞는 글을 구상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예상 독자를 '지방 자치 단체 및 노인 복지 관련 단체'로 설정하고 있는데, ④에서는 '노인들에게 사회 참여에 대한 태도 변화를 요구한다.'라고 하여 예상 독자와는 관련 없는 내용을 선정하고 있다.

8. [출제의도]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여 글쓰기에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육아 휴직의 효과에 대한 여성들의 회의적인 인식은 제시된 자료들을 통해서 판단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⑤ (가)에서는 육아 문제로 인한 상황을 개선하지 않으면 심각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 하였고, (다)에서는 대체 인력 문제와 기업 관행이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어 있다.

9. [출제의도] 개요를 바르게 수정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II-1'은 무질서한 육의 광고물에 의해 발생하는 폐해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㉔의 '실용적이면서 미관이 뛰어난 간판 제작, 이용'은 폐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다. 따라서 ㉔을 'II-1'의 하위 항목으로 옮겨야 한다는 ④는 적절하지 않다.

10.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내용을 생성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④를 보면, 뒷좌석이라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그림의 내용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용수철처럼'이라는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또 '안전벨트는 뒷좌석에도 부착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라고 하여 뒷좌석이라고 하더라도 안전벨트를 매어야 한다는 행위를 완곡하게 권유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직접적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11. [출제의도] 문법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ㄷ의 '실패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말하는 사람의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런데 ③에서 이를 '말하는 사람의 기대'와 관련하여 해석하고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식사를 하지 않은 것'은 의지와 관련이 있다. ② '비가 오지 않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다. ④ '14초 이내로 달리지 못하는 것'은 능력에 해당한다. ⑤ '폭설'은 외부 상황에 해당한다.

12. [출제의도]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통제'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약하는 일'이며, '억제'란 '억눌러서 그치게 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육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약하는 것이므로 통제가 적절하다. '지양'이란 '높은 단계로 오르기 위하여 어떤 것을 하지 않는 것'이며, '지향'은 '지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사회 통합은 바람직한 방향이므로 지향이 적절하다. '분리'란 '서로 나뉘어 떨어지는 것'이며, '분화'는 '단순·동질적인 것이 복잡·이질적인 것으로 갈라져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현대 사회는 복잡하고 이질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므로 분화가 적절하다.

[13~16] 현대시 제재
 <출전> (가) 김관식, '거산호 II'
 (나) 최두석, '성애꽃'
 (다) 김혜순, '고층 빌딩 유리창담이의 편지'

13. [출제의도] 시의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의 화자는 창 안에서 창밖의 산을 예찬하고 있다. (나)의 화자는 시내버스를 타고 있는데, 창 안의 시내버스 좌석에 앉아 창밖의 사람들과 친구들을 떠올리고 있다. (다)의 화자는 유리창담이로 고층 빌딩의 창밖에서 유리를 담고 있다. 그러므로 (가)와

(나)의 화자는 창 안쪽 공간에, (다)의 화자는 창 외 바깥쪽 공간에 위치하고 있다.

14. [출제의도] 두 작품의 표현상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는 '사람은 맨날 변해 쌓지만 / 태고로부터 푸르러 온 산이 아니냐'라는 부분에서 대조적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나)에서는 '엄동 흑한일수록 / 선연히 피어나는 성애꽃'과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에서 차가움의 이미지와 따뜻한 이미지가 대조되어 있다.

15. [출제의도] 두 작품에서 나타난 소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에서 화자는 성애꽃을 보면서 서민들과 친구를 떠올리고 있는데, 작품의 마지막 두 행을 보면 (나)에는 암울한 시대 현실이 암시되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보기>에서는 사람도 성애꽃과 마찬가지로 '가장 가혹한 고통의 밤이 끝난 자리에 / 가장 눈부시고 부드러운 꿈이 일어섰다'라고 노래하고 있으므로 절망적인 사회 현실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16. [출제의도] 시의 전개 및 표현 방식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다)의 화자는 고층 빌딩의 유리창을 닦으며 창문이 열리기를 바라고 있다. 하지만 대상을 예상하는 태도는 찾아볼 수 없다.

[17~19] 사회 제재
 <출전> 김대식 외 2인, '최고 가격제와 최저 가격제'

17. [출제의도]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중심 개념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지문 2단락을 보면, 최고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낮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상품 생산을 덜 하게 되어 공급량이 줄고, 그렇기 때문에 최고 가격과 균형 가격의 차이가 커질수록 공급 부족 현상은 심화된다고 했다. 따라서 ⑤에서 P₁이 최고 가격으로 설정되었을 때, 최고 가격인 P₁과 균형 가격인 P₀의 차이를 크게 하면 공급 부족량을 의미하는 ㉔은 커질 수밖에 없다.

18. [출제의도] 글에서 설명하고 있는 중심 개념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를 다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최저 임금제는 임금(상품)의 최저 가격을 설정하고 이 가격 이하로 내려가지 못하게 통제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최저 가격제의 일종이다. 최저 임금제(최저 가격제)는 근로자(노동 생산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노동 소비자)에게는 불리한 제도이다. 따라서 최저 임금제가 시행되면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고용량은 감소한다.

19. [출제의도] 글을 읽고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낼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㉓의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은 최고 가격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㉔으로 인해 생긴 수 있는 문제는 공급 부족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가장 대표적인 방식이 각 소비자에게 배급표를 나누어 주고 그 배급표만큼 상품을 살 수 있게 하는 배급제이다.

[20~23] 고전소설 제재
 <출전> 적자 미상, '영영전'

20. [출제의도] 작품의 공간적 배경과 사건을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공간 I'은 최산군의 궁이다. 최산군의 부인은 일부러 술에 취한 척하고 행동을 꾸민 김생이 자리에서 일어나자 그의 갈증을 염려하여 영영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했을 뿐이지, 김생과 영영이 서로 사랑하는 사

이라는 것을 알고 영영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한 것은 아니다.

[오답풀이] ③ '공간 II'는 거리로, 김생은 최산군의 궁에 들어가기 위해 일부러 취한 척하고 말에서 떨어진다.

21. [출제의도] 등장인물의 말과 편지 내용을 비교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B]에서는 영영이 자신이 거주하는 처소의 쓸쓸한 풍경과 사물을 묘사하면서 임에 대한 그리움과 슬픔을 표출하고 있으나, [A]에서는 배경 묘사를 찾을 수 없다.

22. [출제의도] 등장인물의 심리와 유사한 작품을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㉓은 김생이 영영과 이별하는 상황에서 느끼는 슬픔과 안타까움의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⑤도 '이별하네'와 '이별 눈물에 온갖 한이 사무쳤네'라는 시구에서 유사한 심정을 느낄 수 있다.

23. [출제의도] 제시된 상황과 어울리는 한자어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㉔은 이릴 수도 없고 저릴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이다. 이에 어울리는 한자어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꼼짝할 수 없는 궁지'를 뜻하는 ⑤이다.

[오답풀이]
 ③ '앞뒤를 제고 망설임'을 이르는 말이다.

[24~26] 과학 제재
 <출전> 이영기, '상식 밖의 과학사'

24.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뉴턴은 만유인력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중력을 물체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보았는데 아인슈타인은 중력을 '공간의 휘어짐'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③이 소재목으로 적절하다.

25. [출제의도] 글의 중심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아인슈타인의 이론에 의하면 중력장이 있는 영역에서는 빛이 휘게 되어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시간의 지체 현상이 일어남을 의미한다. 즉, 아인슈타인에 의하면 시간은 공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공간이 시간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④는 적절하지 않다.

26. [출제의도] 글의 문맥적 의미를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5단락의 '블랙홀처럼 무거운 물질이 있는 태양계 밖의 우주 공간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아니면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한다.'로 보아, 매우 무거운 물질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27~30] 인문 제재
 <출전> 김영정, '비판적 사고와 학습 3단계'

27. [출제의도] 정보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1단락에서 창의적 사고는 반성적 사고의 체화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였고, 5단락에서 창의력을 위해서는 유사 응용문제 풀이를 반성적 사고 속에서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반성적 사고의 체화 단계까지 도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창의적 사고와 유사 응용문제 풀이의 반복이 관련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진술이다.

[오답풀이] ①, ④, ⑤는 1단락에서, ③은 1단락과 5단락에서 알 수 있다.

28. [출제의도] 정보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1단락에서 '반성적 사고의 체화를 통해 궁극에 도달하면 창의적 사고가 가능해진다.'라고 하였고, 5단락에서 '반성적 사고로 얻은 지식이나 원리의 이해만을 가지고는 활용 가능성이 극대화된 지식을 산출해내지는 못한다.'라고 하였다. 이로 보아 <보기>에서 제시된 '학습 2단계'는 '반성적 사고'와 관련 깊고, 반성적 사고가 체화된 '창의적 사고'는 '학습 3단계'와 관련 깊음을 알 수 있다.

29. [출제의도] 어휘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의미는 '일정한 형식이나 격식'이라는 의미이다. [오답풀이] ㉡, ㉢ '어떤 물건의 테두리나 열개가 되는 물건'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 '사람 몸이 의적으로 갖추고 있는 생김새나 균형'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30. [출제의도] 정보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특정 영역에서 습득한 원리를 다른 영역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게코도마뱀이 섬모를 이용하여 천장에 붙어 있는 원리를 연구하여 이것을 접착제라는 다른 영역의 사물에 적용시키고 있다.

[31~34] 현대소설 제재

<출전> 임철우, 『직선과 독가스-병동에서』

31. [출제의도] 작품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서술자인 '나'가 이야기 상대방인 '선생님'에게 이야기하는 어투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지만, 서로 이야기를 실제로 주고받고 있지는 않다. 또한 이 같은 서술 방식에서 '나'의 성격을 추리할 수는 있지만, '선생님'의 성격이 어떤지는 알 수 없다.

[오답풀이] ㉣ 휴일의 평화로운 광장의 풍경을 보면서 소름 끼치는 광경을 떠올리고 있는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32. [출제의도] 작품의 전체 내용을 구조화했을 때 그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야기 1에서 선생님에게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 서술자의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3.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서술자는 흰 방에 끌려갔다 온 후부터 죽은 시면들의 환영을 본다. 이 같은 환영은 계속 서술자를 괴롭히고, 결국 ㉠에서 '나'가 특정한 행동을 하게 만들고 있다. 즉 '나'가 계속 환영을 보면서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34. [출제의도] 소재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서술자는 자신이 그런 만화 때문에 잡혀 갔다가 온 후로 만화를 그리지 못하면서 독가스를 맡게 된다. 결국, 독가스는 '나'가 만화를 그리지 못하게 하는 '시대적 제약이나 억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35~38] 예술 제재

<출전> 조이한·진중권, 『천천히 그림 읽기』

35. [출제의도] 글의 서술 방식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금의 무게를 다는 여인>이라는 그림을 활용하여 도상학의 접근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1단락에서는 도상학의 어원 및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36. [출제의도] 핵심 구절들의 의미를 이해하고 그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도상학은 그림에 그려진 것들을 묘사한 후 관습적 체계를 참고하여 그림의 상징적 의미를 밝히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관습적 체계를 고려해야 화가가 그림에 담은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는 ㉠의 진술이 가장 적절하다.

37. [출제의도] 문법적 기능을 파악하고 이를 구분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삶의 무상함'이라는 목적어를 취하고 있는 ㉢는 '눈에 띄게 하려'라는 사동의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오답풀이] ㉡는 '나누어진다'의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 피동 접미사 '-이'가 결합된 형태이다.

38. [출제의도] 정보의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의 '금슬 좋게 살라는 의미'는 그림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해석이므로 세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39~43] 고전 시가 복합 제재

<출전> (가) 작자 미상, 『서경별곡』

(나) 작자 미상, 『상사회담곡』

(다) 허균, 『망처숙부인김씨행장』

39.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는 임과 이별하기보다는 길잡하던 베를 버리고라도 임을 따라가겠다고 노래한 것이다. (나)는 화자가 편지를 받고, 자신으로 인해 대장부를 죽게 만들 수 없으니 금월 모일 명월야에 만나자는 답신을 쓴 것이다. (다)는 죽은 아내를 떠올리며 슬픈 심정을 드러낸 것이다. 따라서 세 작품의 공통점은 화자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해 속마음을 표출한 것이다.

40.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가)에서도 계절의 변화에 따라 화자의 심리가 달라 나타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나)에서도 상대방의 편지를 받고 상대방을 만나겠다고 결심한 것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하고 있을 뿐이다.

[오답풀이] ㉡ '설마 죽게 하리', '명(命)을 끊게 하라' 등의 설의적 표현이 나타난다. ㉢ (나)에서는 공간적 배경을 부각하고 있지는 않지만, (가)에서는 '대동강'이 임과 이별의 공간으로 제시되고 있다.

41. [출제의도] 제재의 기능을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나)의 화자는 혼인을 할 때 남편 외에 외간 남자에게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었는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 죽을 정도에 이르렀다는 편지를 받고 심정의 변화를 일으켜 '금월 모일 명월야'에 편지 보낸 사람을 만나겠다는 답신을 쓰고 있다. (다)는 서술자가 당상관으로 진급하여 아내에게 '숙부인'이라는 내명부 벼슬을 내린다는 교지를 받고 그 교지를 아내의 영전에 바치면서 안타까워하고 있다.

42. [출제의도] 시어 및 시구에 대해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네 아내 바람난 줄 몰라서'는 임을 배에 싣고 떠나는 사공에 대해 네 아내나 잘 챙기지 왜 남편의 임을 싣고 떠나느냐고 원망하는 것일 뿐, 유란한 세대를 비판한 것과는 거리가 있다.

43. [출제의도] 작품을 바탕으로 창작, 변형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다)에서는 서술자가 책을 읽다 싫증을 내는 기색을 보이면 아내가 농담을 하며 서술자를 독려하였다고 하여 아내의 성품을 추리할 수 있지만, <보기>에서

는 근거가 없어 추리할 수 없다.

[오답풀이] ㉠ (다)에서는 피난을 가던 중 아들을 출산한 아내가 기운이 다하여 죽었다고 하여 사별(死別)의 원인이 서술되어 있고, <보기>에도 5행과 6행에 그러한 원인이 나타나 있다. ㉡ (다)에서는 '입진년 왜적을 피하여'에서, <보기>에서는 '입진년 조종에 이리저리 내몰리다'에서 알 수 있다. ㉣ <보기>에서 혼인 첫날밤에 약속했다는 것은 (다)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다. ㉤ (다)에서는 역설적 표현이 나타나 있지 않으나, <보기>에서는 '보고 있어도 볼 수 없는 그대'라는 역설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44~47] 기술 제재

<출전> 짐머맨, 『테마가 있는 20가지 과학 이야기』

44. [출제의도] 글의 중심 화제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유전자 치료를 위해 프로브와 겔 전기영동법을 통해 비정상적인 유전자를 찾아내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45. [출제의도] 글의 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A]는 유전자를 추적하는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그런데 '유전병 환자에게서 채취한 DNA 조각들'이 아닌 프로브에 방사성이나 형광성을 띠게 하였다고 하였다.

46. [출제의도] 어휘의 의미를 파악하고 이와 유사한 어휘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은 많은 것 중에서 찾아낸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이에 해당하는 어휘는 '색출'이라고 할 수 있다.

47. [출제의도] 글의 논지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론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염기는 선택적으로 교감하는 특성이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유전자를 추적한다. 그런데 [A]에서 프로브는 건강한 사람의 것이다. 그러므로 유전자에 이상이 있는 사람의 염기와는 결합할 수 없다.

[48~50] 언어 제재

<출전> 이혜심, 『언어와 논리적 사고』

48. [출제의도] 글의 중심 내용을 이해하고 이를 다른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보기>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학문에서 사용되는 개념과 일반적 개념을 혼동한 사례이다. 즉, <보기>의 학생은 철학적 의미의 '소외'와 일반적 의미의 '소외'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49. [출제의도] 글의 문맥을 고려하여 생략된 부분에 들어갈 내용을 추리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이 글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는 이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또는 말하는 사람이 문법적 오류를 범했을 때 의사소통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은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생긴 경우라고 할 수 있다.

50. [출제의도] 문법적 특성에 맞는 단어를 찾을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이다.

조사 '-와(파)를' 제한하는 단어(서술어)에는 '상'의하다, 대답하다, 혐의하다' 등이 있고, 조사 '-에게'를 제한하는 단어에는 '충고하다, 질문하다' 등이 있다.